

13년동안 작성한 수정·개체관리 기록부가 개량목장의 가장 값진 자산



김영태 / 개량목장
충북 청원군 북일면 도원리 42

94년 선도 개척농 시험에 합격 선발되어 2개월의 교육과 국내 목장연수 해외연수 까지 하게되는 영광도 안았다.

유럽은 천혜의 조건으로 낙농하기에 적합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조건이 많지만 사양관리나 소의 능력면에서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도 많아 기회가 된다면 이스라엘의 낙농을 꼭 한번 접하길 감히 권하고 싶다.

봄 기운을 마음껏 누리며 한가로이 늘어서 달콤한 낮잠을 자는 소들의 등위로 햇볕이 쏟아진다.

이렇듯 계절이 바뀌어 낙농을 시작한지 어언 10여년 연암축산 낙농과를 졸업하고 경험도 쌓고 돈도 벌겸하여 약1년을 2개 목장에서 생활하다 86년 말 그동안 모은 돈으로 경산우 3두를 구입하여 87년 3월에 철재와 보온 덮개로 축사를 지어 중학교때 부터 꿈꾸던 낙농을 시작했다.

푸른 초원위의 한가한 쪼들들은 기억 한편으로 접은채 아주 초라한 시작을 했다. 그 때는 젊었으므로 모든걸 해낼 수 있었다. 트랙터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 트랙터를 구입하여 남의 논과 밭을 일켜가며 밤을 낮삼아 정신 없이 일을 하였다.

형편이 조금씩 나아져 소도 몇마

리 더사고 분만한 송아지도 잘자라 주었다. 착유우도 7두가 되어 파이프라인 시설도 무리를 하여 설치하였다. 이는 소를 더 빨리 늘려보자는 나 나름의 생각에서였다.

현재 목장 부지 760평을 내 이름으로 등기를 내고 난생 처음 내 땅이라는 나도 지주가 되었다는 설레임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93년도 부터 컨테이너와 주입기를 구입하여 자가 인공수정을 시작하여 수정료도 절약이 되었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정액을 구입하여 계획적으로 번식을 할수있게 되었으며 임신여부를 정확히 알수있게 수의사를 통하여 임신 감정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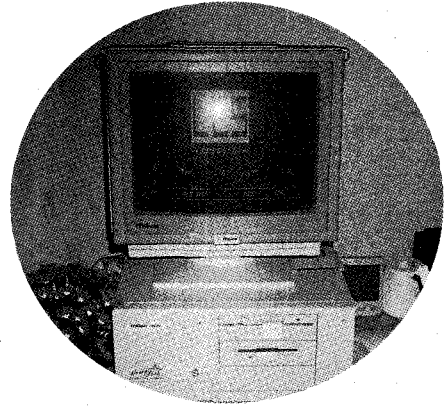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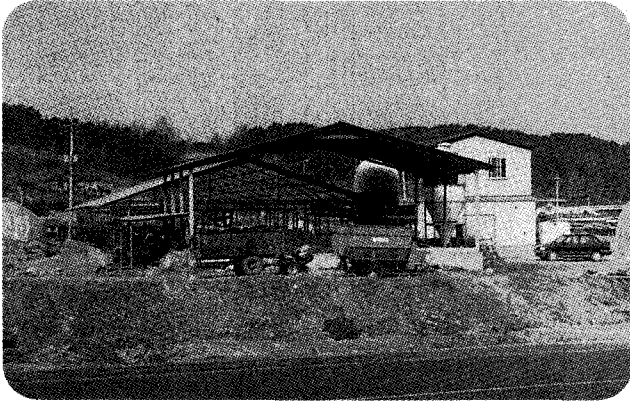
하늘의 도움이었던가? 노력의 댓가인가 2000평 이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넓고 소중한 사료포를 구입하게 되었고 94년 선도 개척

농 시험에 합격 선발되어 2개월의 교육과 국내 목장연수 해외연수 까지 하게되는 영광도 안았다.

교육과 연수를 통하여 많은 새로운 지식과 선진 목장의 경영과 사양관리도 접하게 되어 내 목장에 접목을 시켜 많은 개선도 가지고 왔다.

교육과정중 컴퓨터 교육이 컴맹이었던 내게 컴퓨터를 접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게 큰 행운이었다. 이후에도 군청에서 낙농인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켜주어 컴퓨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교육이수 후 486컴퓨터를 구입하여 목장의 한부분을 컴퓨터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TMR배합기도 구입하였고 동절기 옥수수 엔실리지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배합을 하여 급여하였고 배합표는 내가 직접 APL



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작성하였다.
 개척농 자금을 1억원 받아 현재의 톱밭발효우사(가변형) 212평과 퇴비사 50평, 텐덤식 착유장(2×3), 70t 규모의 콘크리트 사이로 시설을 완공하여 이사를 하게되었다. 집과 착유장의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1층은 착유장 2층은 살림집을 지었다. 그동안 송아지들은 철저한 계획교배를 통해 우수한 송아지를 선별해 사육하고 있다.
 목장을 시작하면서 수정기록부와 개체관리 기록부를 만들어 지금까지 작성하여 모든 상황을 이 장부만 보면 알수있는 우리목장의 가장 값진 자산이다. 농후사료 자동급여기 설치로 착유우와 큰송아지 건유우 사료는 자동 공급되므로 절약되는 시간을 부업으로 논농사도 조금은 짓고있다.
 자가사료포 2000평과 임대포 3000평은 모두 옥수수를 심어 엔실리지로 확보하며 후작오른 연맥과 유채를 혼파하여 청예로 급여 이용한다.
 현재 착유두수는 27두로 1일 700kg납유하며 건유우 7두, 육성우 25두를 부부의 노동으로 사육

하여 이 소들은 거의 자가 생산한 소들로 기초등록우 5두 이외에는 본 혈통등록우다. 앞으로 성우 50두 까지는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수정은 계속하여 캐나다산 종모우만을 사용하고 가장 큰 이유는 우군의 체형과 능력의 획일화를 위해서다. 전우군의 평준화는 많은 장점이 있으리라 본다. TMR급여와 군관리 시설의 이용도에서도 유리하다.
 99년 1월 검정성적으로(성년형 환산) 일만kg 이상 9두, 8천kg 이상 15두, 나머지도 6천kg 이상이다. 능력이 뛰어난 몇마리 소보다는 전우군이 일만kg에 가깝게 빨리 올릴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연중TMR급여와 농가 치즈를 생산하려고 공부도 하고 자료도 수집중에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치즈가 발달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도전해 볼만한 분야로 생각되며 목장을 이주해야겠다는 생각도 있다. 목장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환경적인 문제도 신경을 써야한다. 환경법

때문에 소들도 이제는 한정된 공간에서 사육해야될 형편이라 종모우 선택시 다리에 지금 보다도 더 많은 세심한 신경을 써야겠다.
 외모심사 능력을 배워서 소의 개량에도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다.
 “할줄 이는게 힘이다. 할줄 알게 배우자” 라는 나의 생활신조를 다시한번 생각하며 이 글을 정리 할때가 된것 같다. 농촌이 힘들다는 인식은 무리한 욕심에서 생기는게 아닌가 싶다! 더구나 낙농이라는 직업이 하루라도 쉬수없는 직업 그렇다면 과연 누가 앞으로 이런 직업을 택한단 말인가?
 확대되는 헬퍼사업과 적정규모의 사육과 여유 있는 생활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우리의 농촌과 낙농을 이끌어 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가 오손도손 이야기하며 좀더 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고 소들을 사랑할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 일 하느라고 고생 많소. 이 모든것이 당신의 보필이요. 사랑하오! 현숙 ☺
 (연락처 : 0431-214-9122)